

EAI 여론분석센터

작 성 자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이 메모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 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0-78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동아시아연구원

© EAI 2012

www.eai.or.kr

선거후 패널조사에서 나타난 민심

선거후 3일 동안 수행된 마지막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는 선거결과와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과 평가를 나타내고 대선 이후 주요 정당의 행보에 대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우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패배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야권후보 단일화가 기대만큼 잘 안 돼서’라는 응답이 50.1%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18.2%,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 15.4%, ‘문재인 후보가 못해서’가 4.7%였다. 흥미로운 점은 문 후보 지지자들은 물론 박 후보 지지자들의 42.6%도 야권 단일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을 박 후보의 승리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는 결과이다.

대선 승패의 요인

이 조사결과는 야권이 의도한 이른바 아름다운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대선과정의 최대 쟁점이었지만 문재인, 안철수 두 진영의 이해를 조정하지 못해 결국 안 후보의 사퇴로 끝난 야권 단일화 과정을 다수 국민들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야권 단일화 실패 이외에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이유들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통해서도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18.2%인데 비해, ‘문재인 후보가 잘못해서’는 4.7%에 불과했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들이 야당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상당수 국민들이 민주당이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전면적인 지도부 교체와 당내쇄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대의 평가가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가 잘해서’는 15.4%인 반면 ‘새누리당이 잘해서’는 1.2%에 불과했다. 즉 새누리당 보다는 박근혜 개인의 자질과 인물 경쟁력을 선거승리의 이유로 평가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선거승리에 고무되고 안도하기 보다는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쇄신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결과이다.

놓치지 말아야 할 유권자들의 메시지

정당 지지도에 대한 조사결과도 기존 정당들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가 37.7%에 달하고,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무당파가 각각 59.5%와 44.7%라는 결과는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민주당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체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 보다 12%이상 낮을 뿐만 아니라,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던 젊은 세대들에게서도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뼈아프게 인식할 필요

가 있다. 이번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는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과감한 개혁과 쇄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 ■

[표 1] 박근혜 승리 이유(%)

| 사례수 (명) | 박근혜 후 보가 잘해 서 | 새누리당이 잘해서 | 이명박 대 통령과 부가 잘해 서 | 문재인 후 보가 잘못 해서 | 민주당이 잘못해서 | 야권 후보 단일화가 그만큼 잘 안 돼서 | 모름/무응 답 | |
|---------|---------------|-----------|-------------------|----------------|-----------|-----------------------|---------|------|
| 전체 | 15.4 | 1.2 | 1.0 | 4.7 | 18.2 | 50.1 | 9.3 | |
| 지지 후보 | 박근혜 | 26.5 | 1.6 | 1.1 | 6.2 | 17.3 | 42.6 | 4.7 |
| | 문재인 | 4.6 | 0.7 | 1.0 | 2.4 | 20.1 | 57.7 | 13.6 |

[표 2] 지지정당(%)

| 사례수 (명)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 통합진보당 | 진보정의당 | 다른정당 | 없음 | |
|---------|--------|-------|-------|-------|------|-------|------|
| 전체 | 35.3 | 23.0 | 1.8% | 1.9% | 0.2% | 37.7% | |
| 투표 | 박근혜 | 67.9 | 4.1 | 0.4 | 0.3 | 0.1 | 27.1 |
| 후보 | 문재인 | 3.4 | 43.2 | 3.4 | 3.8 | 0.3 | 45.8 |
| 세대 | 19-29세 | 12.9 | 25.3 | 0.6 | 1.4 | 0.4 | 59.5 |
| | 30대 | 22.7 | 26.3 | 2.8 | 3.5 | 0.0 | 44.7 |
| | 40대 | 27.2 | 27.8 | 3.4 | 4.0 | 0.3 | 37.0 |
| | 50대 | 49.2 | 20.2 | 1.0 | 0.3 | 0.0 | 29.3 |
| | 60세이상 | 64.5 | 14.7 | 1.0 | 0.0 | 0.3 | 19.5 |

EAI · SBS · 중앙일보 · 한국리서치 공동 "2012 대선패널조사"

EAI의 선거 패널조사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6년 제4회 전국지방선거에서 한국 최초로 패널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진행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패널조사는 특정시점의 투표선호만을 파악하는 일회적 조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사방법이다. 개별 유권자의 태도 변화와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흐름에 따른 표심변화의 원인을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AI는 2006년 패널조사 이후로도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그리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널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선거연구와 선거보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AI는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2012 대선패널조사" 를 진행한다.

EAI SBS 중앙일보 한국리서치 공동 2012 총선대선패널조사는 모두 7회(wave)를 진행한다.

〈패널조사의 진행과 주요 조사내용〉

| | | | | | | |
|------------------|---------------|--------------|--------------|---------------|--------------|----------------|
| 총선 1차 조사 | 총선 2차 조사 | 대선 1차 조사 | 대선 2차 조사 | 대선 3차 조사 | 대선 4차 조사 | 대선 5차 7차 조사 |
| 3.29 선거 운동 개시 | 4.11 총선 직후 | 대선 D-150 | 대선 D-60 | 대선 D-20 | 대선 D-7 | 12.19 대선 직후 |
| 패널특성과 투표행태 | 투표행태와 요인 | 지지도와 인물요인 | 표의 이동과 원인 | 무당파 변동과 이슈 | 선거예측과 미디어 | 선거평가와 국정전망 |

EAI 2012 패널조사 연구팀

- 위원장 : 이내영 EAI 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
- 연구진 : 강원택(서울대) · 권혁용(고려대) · 김성태(고려대) · 김준석(동국대) · 박원호(서울대) · 박찬욱(서울대) · 서현진(성신여대) · 윤광일(숙명여대) · 이곤수(EAI) · 이우진(고려대) · 이현우(서강대) · 임성학(서울시립대) · 장승진(국민대) · 정원철(EAI) · 정한울(EAI) · 지병근(조선대)
- 언 론 : 신창운(중앙일보) · 현경보(SBS)
- 조사팀 : 김춘석 · 오승호 · 유석상 (이상 한국리서치)

대선5차 패널조사 개요

| | |
|-------|--|
| 조사일시 | 2012년 12월 20 - 22일 (3일간) |
| 표본크기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유권자 패널 1,355명 |
| 표본추출 | 지역 · 성 · 연령 비례층화 후 무작위 추출 (학력/직업/자가소유 비율 반영) |
| 표집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하면 95%신뢰수준 ±2.7% |
| 패널유지율 | 67.8% (최초 패널 2,000명 기준) |